"편 가르기 심한 세상, 손 잡아요"

홍석천, 가수 '톱G'로 변신

"내면이 선진화돼야 선진국"

가수로 변신한 방송인 홍석천 /홍석천 제공

"요즘 세대나 성별에 따른 편 가르기가 심하잖아요? 하지만 다 이웃이고 가족이자 친구들인걸요.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TV 드라마나 예능에 출연해 온 방송인 홍석천이 마이크를 잡고 '톱 G'라는 가수로 깜짝 변신했다.

디스코를 재해석한 신곡 'K 톱 스타'(K TOP STAR)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겨워한 대중을 그만의 신나는 방식으로 위로하는 노래다.

홍석천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지친 분들에게 '손잡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즐겁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발매 취지를 밝혔다.

홍석천은 몇 해 전 패혈증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뒤 애착을 갖고 운영하던 식당들을 하나둘 접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한파가 닥치자 식당 두 곳마저 문을 닫고 자기 자신과 가족·지인에게 시선을 돌렸다고 했다.

그러던 중 때마침 홍석천만의 독특함·유쾌함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내놓자는 제안이 들어와 관련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래까지 발표하게 됐다.

홍석천은 신곡에서 '모두가 너를 비난해도 / 걱정 마 일어설 수 있어 / 서로가 다를 수 있어도 / 모두 일어나 함께 춤추자'라며 다름을 넘어 화합을 노래했다.

그는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분들이 저 말고도 너무 많다"며 "그들이 다시 에너지와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메시지를 표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곡 뮤직비디오에는 동성 부부인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가 출연해 눈길을 끈다.

홍석천은 "터너 대사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뉴질랜드·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같은 듯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다"며 "'사회(변화의) 속도감'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너무 달라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고 되돌아봤다.

1995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한 그는 지난 27년간 드라마, 예능,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가며 활약했다.

그렇지만 2000년 커밍아웃 이후 사람들은 그에게 한없이 가벼운 캐릭터 혹은 지나치게 무거운 답변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아쉬움은 없을지 궁금했다.

홍석천은 "정통 연기를 배우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면서도 "이제는 그러한 욕심을 버렸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옛날에는 (남들과는 다른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받아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표로 했던 그림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경제력과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인식이 선진화돼야 선진국"이라며 "다양성을 솔직하게 토론하고 발전시키는 문화가 뿌리내려 저 같은 사람들의 정체성도 논하는 열린 사회로 가야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 확정

황동혁 감독 메시지 공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라고 시작하는 시즌2 제작을 알리는 황동혁 감독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황 감독은 "기훈, 프런트맨이 돌아온다"며 "딱지를 든 양복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전했다.

기훈은 이정재가 분했던 게임 최종 우승자이며, 프런트맨 이병헌이 분했던 게임 총괄 진행자다.

딱지를 든 양복남은 사람들에게 게임 참여를 권하는 인물로 공유가 연기했고, 영희는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왔던 거대한 인형 캐릭터다.

황 감독은 "시즌1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기까지는 단 12일의 시간이 걸렸다"며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앞서 황 감독은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2024년 핼러윈에 시즌2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우블' 박지환 "못나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

투박한 순댓국집 사장 역

"자기연민 배제하고 연기"

배우 박지환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좀 형편없어도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들이 건강하면 그 사람도 건강함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 가득한 tvN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정인권을 연기한 박지환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인권은 오일장에서 순댓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과거에는 깡패였지만, 하나 남은 가족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아버지다.

그는 정인권에 대해 "철이 들진 않았지만, 그냥 주어진 삶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는 인권이가 거칠고 못나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지환은 정인권을 연기하며 자기연민은 배제하려고 했다고 했다.

박지환은 "정인권은 어느 순간 성장을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게 된 것 같다"며 "'난 몰라', '부족함이 없어', '이대로 좋아'하면서 자기연민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정인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든다. 아들 정현(배현성)이 과거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가 지금은 앙숙처럼 지내는 방호식(최영준)의 딸 영주(노윤서)를 임신시켰다는 것이었다.

눈이 돌아간 정인권은 아들 정현에게 손찌검한다. 그런 정인권에게 정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다. "아버지가 평생 창피했다"는 것이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장면이지만, 작가·감독과 한 대본리딩을 제외하면 박지환은 촬영 한 시간 전에야 현장에서 대본을 볼 정도로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감정을 지어내기보다는 '날것'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장면이야말로 (어떻게 연기할지) 작전을 짜기엔 유치하다"며 "(연기할 때) 눈물이 안 나도 마음이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만든 장면이 아니다. 배현성군이 너무나 멋진 감정을 갖고 제 앞에 서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연합뉴스

최민식·손석구 '카지노'서 호흡…하반기 공개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연출

최민식과 손석구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에서 호흡을 맞춘다.

디즈니+는 13일 최민식, 손석구, 이동휘, 허성태 등 '카지노' 출연진을 공개했다.

'카지노'는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한 남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존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최민식이 '사랑과 이별'(1997~1998) 이후 2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작품이다. 여기에 최근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영화 '범죄도시2'로 인기몰이 중인 손석구가 출연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등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를 소화해온 이동휘, '괴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가 출연한다.

연출은 '범죄도시'(2017)에서 화끈한 액션과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를 보여준 강윤성 감독이 맡았다.

'카지노'는 올해 하반기 디즈니+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통합뉴스룸 11:20 청춘야구단㉶	6:00 생활의 발견㉶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으라차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붉은단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 11:15 글로벌 동물뉴스㉶ 11:45 치치핑핑 시즌4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0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 안전단 8:00 딩동댕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9:20 꼬마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통합뉴스룸 1:00 세상다반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3:05 동행㉶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개는 훌륭하다㉶ 1:50 영화가 좋다㉶ 3:00 KBS 뉴스타임 3:10 갤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0 백종원 클라쓰㉶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닥터로이어㉶ 1:40 출발! 비디오 여행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출발! 비디오 여행	12:00 SBS 12 뉴스 12:5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00 뉴스브리핑 4:00 좋은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TV 동물농장㉶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집 1:50 EBS 다큐프라임㉶ 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3:05 클래스 e 3:25 EBS 비즈니스 리뷰㉶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파피그 4:40 딩동댕 유치원㉶ 5:00 EBS 뉴스 5: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5:30 아기상어 올리와 5:45 출동! 슈퍼윙스㉶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이웃집 찰스 8:30 으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시사기획 창 10:50 더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30 붉은 단심 10:40 갓파더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호적메이트 10:30 PD 수첩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세상에 이런일이 10:00 우리는 오늘부터 11: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6: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7:00 레이디 버그와 블랙캣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건축탐구 집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스e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6월 14일 (음력 5월 16일)

子 48년생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60년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답답한 날이다. 72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84년생 좌충우돌하는 날이다.

丑 49년생 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61년생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73년생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5년생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寅 50년생 되는 일이 없는 날이니 중요 결정은 내일로 미뤄라. 62년생 대세를 좇아라. 74년생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86년생 남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

卯 51년생 부부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63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75년생 계약이 성사되거나 목표를 이룬다. 8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辰 52년생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다. 64년생 모두가 합심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76년생 직장인은 승승장구한다. 88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巳 41년생 괜히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53년생 성급한 결정은 후회만 남긴다. 65년생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77년생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午 4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라. 54년생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 6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78년생 실속이 우선되어야 한다.

未 43년생 물 흐르는 듯이 사는 것이 제일이다. 55년생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 67년생 영업실적이 최고로 좋아진다. 79년생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申 4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56년생 몸은 바빠지고 지출은 증가한다. 68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80년생 동료와의 협력만이 살 길이다.

酉 45년생 금전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5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69년생 자존심이 상해도 내색하지 말라. 81년생 행복과 불행은 함께 찾아온다.

戌 46년생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58년생 음주가무는 삼가고 일찍 귀가하라. 70년생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다. 82년생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亥 47년생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59년생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라. 71년생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83년생 하나를 주면 둘을 얻는다.